

HUMANISM

ESTHETIC

LEADERSHIP

PROGRESSIVE SPIRIT

EXCELLENCE

RESPONSIBILITY

STEWARDSHIP

KYUNG HEE DENTAL SCHOOL NEWS LETTER

# HELPERS

VOL.5. 2013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뉴스레터

## Vision

- 02 HELPERS 비전과 목표
- 03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 SPECIAL REPORT

- 04 OSCE 소개

## NEWS

- 06 학교 소식
- 10 교실 소식
- 12 동아리 소식

## FOCUS

- 14 해외 탐방

## INTERVIEW

- 16 제8대 최유진 학장님

## FOCUS

- 18 교실 탐방
- 20 문화 탐방

## PEOPLE

- 22 발전기금과 동문 소식



최근 국내외 대학들은 스스로의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가치를 마련하고자 이전까지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수정 보완 하면서 비전을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Global eminence founded on professionalism and respect in oral health and science)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희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서 Global Eminence를 치의학 분야에서 치과의사로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확고한 역량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환자와의 상호간에 존경을 기반으로 국제적 위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가치(Core values)로서 Humanism(인본주의), Esthetic(개성과 조화), Leadership(지도력), Progressive spirit(진취성), Excellence(우수성), Responsibility(책임감), Stewardship(봉사정신) 등의 7개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HELPERS라는 로고로 완성하였다. HELPERS는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성장 발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문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우리의 전통으로서 가꾸어 가야 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Let's go Global HELPERS!"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1.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슬기를 습득한다.
  2.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태도를 기른다.
  3.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

동문들의 활동에 경쟁력이 있도록 국제화에 새로운 역량증대를 도모하고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준봉 원장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의 소식 모음지 HELPERS 5호를 발간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치과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시는 동문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봉사의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수 년 사이에 실력은 물론 열정있는 교수들이 많이 충원해 기초와 임상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양성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교수님들의 탁월한 연구 능력으로 최근 수 년 동안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가 급증하여 의약계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업적을 얻었습니다.

연구실적의 급성장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교육의 수월성 향상에도 학교의 역량을 모으려 합니다. 또한 Global Eminence를 추구하는 대학전체의 목표에 부응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동문들의 활동에 경쟁력이 있도록 국제화에 새로운 역량증대를 도모하려 합니다. 여러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교수, 학생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다양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결과에 자족하지 않고 더욱 세계화에 걸진하여 치과계 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치과대학으로의 교육체제 전환을 앞두고 선대대학의 위상에 부합하는 사전준비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든 경희 구성원의 명성에는 대학의 평판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교수, 학생, 학부모, 동문 모두가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박준봉

Dean's Greeting

I am very pleased to provides news of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via our newsletter HELPERS volume 5.

Our university is trying hard to take a leading role in the field of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 During recent years, many passionate professors has been recruited to reinforce our excellent education system. Furthermore, the number of our research publications in international journals have been remarkably increased, which is the most outstanding achievement among the medical departments. We also signed the MOUs with the foreign universities on the faculty and student exchange programs and the joint researches.

We're going to focus on globalization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fit to 'Global Eminence', which is the new slogan of Kyung Hee University. We are not satisfied with our achievement we had been made, and we will do our best to be one of the most promising universities.

We are now preparing throughly for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scheduled in 2015 from 'graduate school' to 'undergraduate school' in 2015. We strongly believe that we will achieve our common goals if all the members including faculty, students, and alumni focus on them together. We ask for your continuous interest and participation.

Joon Bong Park, DMD, PhD  
 Dean & Prof., Sch. of Dent., Kyung Hee Univ.



# 국시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으로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OSCE 시행

국가 자격시험 차원의 임상수행능력 평가로 학생교육에 철저한 관리와 평가 요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후 국시원)은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 중사자의 역량 강화를 기치로 지난 2012년 5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본격화 작업으로 2013년 6월에는 실기시험에 대한 20개 중항목(안)을 공지하고, 2013년 10월에는 미국 북동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시험기관인 NERB(North East Regional Board of Dental Examiners)와 시험결과 분석 방법 및 컴퓨터화 시험(CBT/CAT) 연구개발, 실기시험, 면허시험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학술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의 실기시험 도입은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들과는 달리 임상실습 기간 중에 환자에 대한 직접적 진료를 해왔던 것에 대해 국가 자격시험

차원에서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학생교육에 있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학계열 교육에 있어서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게 개발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라는 용어로 공용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Harden이라는 사람이 1975년 의학분야에서의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적절한 평가 항목과 보다 객관적인 채점 기준 그리고 시험장 및 시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킨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의사국가시험에 이러한 실기시험을 적용시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치과대학으로의 학제

전환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의 학교육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을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에 적극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전까지 견습과 학생진료에 있어서도 양적인 평가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4학년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종료 시기(10월 말)에 졸업생으로서의 임상술기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 주 동안 임상과별로 실기시험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국내 최초로 OSCE를 주제로 한 논문을 학회지(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에 투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3학년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기본적인 임상술기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 임상술기에 대한 평가를 정규교과목으로 신설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교수들간에 임상치의학 교육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실천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OSCE)의 도입을 2017년으로 예정하고는 있지만 아직 어떤 장소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어떠한 평가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 공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실기시험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중에 임상수행 역량을 보다 더 잘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의 실기시험제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글 치의학교육학교실 객원교수 방재범



##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takes OSCE to prepare the national clinical examination for dental licensing.

On May 2013, The National Health Persona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notified the introduction of the clinical examination for dental licensing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reinforce the capacity of the health care workers.

In the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evaluation method and the terminology of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have been applied and developed widely.

Recently, the terms are trending toward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in popular.

From 2015, the educational system of Kyung Hee university will be reformed from graduate school to undergraduate.

This will be the moment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o dental education course and to ensure the excellence.

One of the changes is the evaluation for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of the students.

Quantitative evaluation system of the student courses is general. Last year, it was the first time to evaluate the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competency who will graduate on Feb 2015.

We examined the clinical performance of each department and analyzed the exam results.

2013년 1학기 외래교원 위촉

우리학교는 2013학년도 1학기 외래교수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래교수는 신규 46명이고, 재위촉은 148명이다.  
원내생에 대한 강의와 임상 실습지도 및 본원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외래교원으로 위촉 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다.

2013년 1학기 교원 인사

- 해외장기연수 복귀 치과교정학교실: 김수정 부교수
- 해외장기연수 발령 치과보철학교실: 배아란 부교수  
치주과학교실: 강경리 조교수
- 연구년 발령 약안면생체공학교실: 권일근 부교수
- 장기근속자 표창 20년 치과보철학교실: 이성복 교수  
영상치의학교실: 황의환 교수
- 장기근속자 표창 구강조직해부학교실: 주성숙 조교수

학부모 초청 간담회



우리학교는 2013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학부모 초청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013년 5월 3일(금)에 개최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학부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Consulting & Concert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자녀의 장래에 대한 상담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2부에서는 치전원 재학생 동아리의 전시 및 공연을 즐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를 초청하여 경희대학교의 상황 및 미래 비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도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치제

제29회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연합 축제가 2013년 5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매년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는 연합축제는 전국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재학생 간의 단합은 물론 이거니와 전국 치과대학 학우들과의 교류도 이어갈 수 있는 행사로 치뤄졌다.  
야구,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볼링, 검도, 탁구 등 운동경기가 펼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왁스카빙대회, 덴티폼 조립대회 등 각종 학생들의 참여 행사가 있었으며, 어울림마당으로 각 학교별 장기자랑 및 축하공연의 시간도 마련됐다.

일본 후쿠오카 대학 교수 및 학생 방문



우리학교와 자매대학인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Rector Kitamura Kenji)의 치과대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2013년 4월 28일(일)부터 5월 4일(토)까지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찾았다.  
Chie Imamura, Yuka Hatae, Moe Sigematu, Osami Migita(이상 6학년)의 학생과, Michihito Maruta 교수가 경희대학교 치전원을 방문한 것은 2005년 4월 15일에 체결되었던 자매결연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에는 경희대 치전원생 4명과 교수 1명이 후쿠오카 치과대학을 방문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오카 치과대학생은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방문한 기간 동안 각각의 임상교실 및 기초교실에서 진행한 특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희의료원 치과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치과병원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생과 만남을 통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치의학역사자료실 설치

우리학교는 2013년 3월에 치의학역사자료실을 치의학관 2층에 설치하였다.  
그간 임종성 동문(4기)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이 기증하였던 치의학 사료를 치의학관 2층에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하였다.  
이 자료실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치의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 전시되며, 우리나라 치의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료구강검진



본원 3학년 76명은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7회에 걸쳐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서울 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489명에 대한 무료구강검진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무료구강검진 사업은 2011년 12월 22일에 본대학원과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간에 체결된 MOU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Lux Humanitas 정신을 계승하고 치전원생의 인성교육 및 재능 기부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체교수 워크숍



2013학년도 상반기 전체 교수 워크숍이 2013년 7월 13일(토)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준봉 대학원장, 보직교수 및 전임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 관내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2013년 5월 25일(토)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의 요청으로 해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소희 학생 외 16명이 동대문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치과병원과 더불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현황 소개 및 소식지, 안내자료 배부하였고 치의학관 지하 2층 강의실, 지하 실습실(임상전단계실습실/진료 B303, 기초실습실 B306, 임상전단계실습실/기공 B403)을 견학하고 신홍플라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끝을 맺었다.

김정희·김정목 교수, <셀(Cell)> 논문 게재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의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이 영양분 결핍 상태에 처한 세포의 자가포식(Autophagy) 원리를 규명했다.  
이로써 당뇨, 암, 치주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 <셀(Cell)> (Vol.152, 1월 17일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Differential Regulation of Distinct Vps34 Complexes by AMPK in Nutrient Stress and Autophagy'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참여했다.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은 세포가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지에 의문을 갖고, 2010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영양분이 부족할 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 작용을 추적했다. 그 결과, 활성화 단백질 인산화 효소(AMPK)가 에너지 결핍을 인지하고, 효소(Vps34) 복합체를 조절해 자가포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목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영양분 결핍이라는 한정된 조건에 처한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다른 자극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영양분 결핍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이 다른 자극에도 적용 가능한지, 생리적 질병과 신진대사성 질환, 치주질환까지 응용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교수는 "치전원의 기초연구 결과 발표를 의아

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학교 치전원은 이미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Medic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MRC) 사업에 선정되는 등 기초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범위 역시 치아와 치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신체는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치전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치전원은 의학, 생물학 등 연계 학문과의 융복합, 관련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연구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

신규임용

치과보철학교실 노관태 명 : 조교수



노관태 조교수



First semester 2013, adjunctive professor appointment

Kyung Hee university appointed adjunctive professors in the first semester of 2013. 46 of them were new and 148 were re-appointed. This professors have the assignment to give lectures and teach about clinical practice from March 1st 2013 to February 28th 2015.

Parents' meetings

May 3rd 2013, Kyung Hee university held a meeting for the parents of dental school students and 40 parents attended. The theme of this meeting was "Consulting & Concert". It was the time to inform and talk about variable course after graduation and any other things.

Visit of Japanese professors and students of Fukuoka university

Kyung Hee university had set up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Fukuoka university (Rector : Kitamura Kenji). 4 students(Chie Imamura, Yuka Hatae, Moe Sigematu, Osami Migita) and 1 professor (Michihito Maruta) visited Kyung Hee dental school from April 28th to May 4th of 2013.

Dental history gallery

On March 2013, Kyung Hee university dental school installed a dental history gallery. In it lots of historical resources that were donated by the alumni (4th graduate Lim Joung

Sung, etc.) are displayed on the 2nd floor of the dental school building. This gallery is opened to every visitors as well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shows the dental history evolution of Korea.

Faculty's Workshop

On July 13th 2013, the workshop in which the entire Faculty participated was held on the Seoul campus. During the workshop, Dean Park jun-bong and the entire Faculty members made a deep discussion about outstanding recruitment and education.

Professor Kim Jung-Hee and Kim Jung-Mok published an article on the scientific Cell journal.

Department of Oral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Their research team found out about the principle of autophagy, a situation in which the cell faces nutritional deficienc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as published on the most honored scientific journal (Cell journal Vol.152, Jan. 17th). The topic of the research is 'Differential Regulation of Distinct Vps34 Complexes by AMPK in Nutrient Stress and Autophagy'. The research team from San Diego California also participated in this study.

Newly appointed professor

Noh Kwan-Tae: 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 김정희교수: AACCC Conference(July 28-Aug. 01, Houston, USA)에 참석했다.
- PLOS ONE(2013.03, 김정희 교수) 및 Autophagy(2013.07, 김정희 교수)에 논문 발표하였다.
- BK(두뇌한국) 21 플러스 과학기술융복합분야에 선정되었다.

예방/사회치과학교실

- 이선경박사 경동대학교 교수발령(2013.7~ )
- 보건복지부: 박용덕교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2013.6~2016.5)
- 박용덕교수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선임(2013.6~ )
- Journal of Natural Medicines; (Astragaloside content in the periderm, cortex, and xylem of Astragalus membranaceus root) 등 3편발표

악안면조직재생학

- 2013년 4월 16일~17일, 오사카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리학교실 강영남 교수님을 초청하여 “Recent Studies in Neurophysiology”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 노대현 교수 “Spinal sigma-1 receptors activate NADPH oxidase 2 leading to the induction of pain hypersensitivity in mice and mechanical allodynia in neuropathic rats”(Pharmacol Res) (IF=4.346) 국제 SCI 논문 발표 (2013년 8월 게재)

악안면생체공학교실

- 권일근 교수 2013년 경희 Fellow 발령(임명기간: 2013.3.1~2015.2.28)(2년)
- 신입교원 발령(2013.3.): 문지희(조교수), 이재형(조교수)
- Advanced Materials: IF 14.829,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IF 7.633, 표지논문, RNA: IF 5.095 외 국제 SCI 11편과 SCIE 2편을 발표하였다.
- 싱가포르 센토사 15 Asian Chemical Society, 이태리 소렌토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functional, Hybrid Nanomaterials 학회, The 7th World Congress on Biomimetics, Artificial Muscles and Nano-Bio(BAMN2013, 2013.8.26~28)에서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총 20건.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미네랄화 기반 암 치료 및 실시간 예후 영상화용 나노융합소재 개발’, 녹십자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암관련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임상 샘플에서의 유전적 변이 조사’ 및 MRC “나노융합 생체소재 기반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 등 총 13개의 연구과제에서 총 12억의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구강해부조직학교실

- 오사카치과대학 Nakatsuka Michiko 외래교수가 4 개월간(7월~10월) 연구교류를 위해 방문
- 주성숙 교수 10년 근속 표창
- IADR 발표 2013. 3. 20~23 (수-토)
- IADR-APR 발표 2013. 8. 21~23 (수-금)
- Localization of ODAM, PCNA, and CK14 in regenerating junctional epithelium during orthodontic tooth movement in rats (Angle Orthodontist) 국제 SCI 1편과 국제 SCIE 2편 발표

치과보존학교실

- 2013년 3월 4일 장석우 교수, 장지현 전임의가 부임했다.
- 2013년 3월 20~23일 최경규·김선영 교수가 제 91차 국제치과연구학회 세계학술대회(IADR)에서 포스터 발표했다.
- 2013년 3월 23~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 학술대회(APEC)에 참석했다.
- 2013년 3월 23~26일 박상혁 교수, 이정민 선생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근관치료학회 학술대회(IFEA)에 참석했다.
- 2013년 5월 27~31일 최기운 교수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013 아시아 엔도 포럼에 참석했다.
- 2013년 6월 14~15일 김덕수 교수, 장지현 전임의, 변찬희·주성훈 선생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접착치의학 학술대회(IAD)에 참석하여 포스터 발표했다.

치과보철학교실

- 2013년 3월 이성복 교수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치과연구학회(IADR)에서 포스터를 발표했다.
- 2013년 3월 30일 권공록 교수가 덴티움 세미나에서 overdenture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 2013년 4월 이성복, 권용대교수(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ITI Consensus Conference에 공동집필위원으로 초청되었다.

스 베른에서 열린 ITI Consensus Conference에 공동집필위원으로 초청되었다.

- 2013년 5월 16~19일 이성복 교수가 일본보철치과학회에 참석하여 국제자석치의학연구프로젝트본부(IRPMD)에서 Magnetic Attachment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 2013년 5월 23일 우이형, 김형섭 교수가 GC Green Society 특별 강연회에서 특강을 하였다.
- 2013년 7월 14일 권공록 교수가 Zimmer 세미나에서 특강했다.
- 2013년 8월 21~23일 방콕에서 열린 국제치과연구학회(IADR)에서 안수진교수와 이도연수련의가 참석해 포스터 및 구연발표.

소아치과학교실

- 2013년 2월 최성철 교수가 Washington University 교환교수로 출국하였다.
- 2013년 4월 13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인 춘계학회에 박재홍 교수, 이수연, 임지은, 이영은, 이연주, 한윤경, 이정민, 홍혜린 선생이 참석하였다.
- 2013년 6월 12~15일 서울 COEX에서 세계소아치과학회가 개최되어 전 의국원이 참가하였다.
- 2013년 8월 19~22일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소아치과 학회에 박재홍 교수, 한윤경, 남옥형, 선지민 선생이 참석하였다.

치과교정학교실

- 2013년 3월 1일 안효원 교수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 교실 조교수로 취임하였다.
- 2013년 3월 28일 오사카 치과대학 교정학 교실이 오사카 치과대학병원에서 개최한 Orthodontic Joint Conference에 참석해 노민기·양동민·권혜영 선생이 발표하였다.
- 2013년 5월 4~7일 김성훈·김수정 교수, 임재범·황민·정우영·김지은 선생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13회 미국교정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김성훈 교수는 ‘Six principles to physiologically stable occlusion-Update in contemporary T(S) AD orthodontics’, 김수정 교수는 ‘Rate of tooth movement into surgical defect with or without graft according to the timing of force application’을 주제로 강연했다.
- 2013년 5월 18일 박영국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2013년 5월 22일 강윤구 교수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칭찬 스타에 선정되었다.

치주과학교실

- 2013년 3월 4일 치주과에 신승윤 교수가 부임했다.
- 2013년 4월 27~28일 Seoul Implant Symposium 2013에서 박준봉 교수가 좌장으로 참가했다.
- 2013년 5월 2~4일 강경리 교수가 Osteology Symposium Monaco에 참가했다.
- 2013년 5월 5일에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 Scientific Congress 2013에 허익 교수가 “증례 맞춤형 골이식 재의 선택”을 주제로 초청 특강했다.
- 2013년 6월 25일 The 20th IAGG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에 박준봉 교수, 강경리 교수, 최유미 수련의가 참가했다.
- 2013년 7월 11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 치주학회 제 2차 학술 집담회에 전 의국원이 참가하였고, 신승일 교수가 “Peri-implantitis”을 주제로 초청 특강했다.

영상치의학교실

- 2013년 3월 16일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화영 선생이 발표한 ‘파노라마방사선촬영술을 위한 갑상선 보호대 개발에 관한 연구’가 우수발표로 선정돼 Carestream 학술상을 수상했다.
- 2013년 6월 22일~27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서 최용석 교수가 ‘혈관조영증가에 따른 콘빔형전산단층영상의 실험적 연구’에 대한 구연 발표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 2013년 2월 16일 김여갑 교수 퇴임식이 있었다.
- 2013년 3월 1일 오주영 교수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2013년 3월 2일~3일 이백수 교수가 Kyung Hee Advance Course For Bone Management 연수회를 개최했다.
- 2013년 3월 6일 이상철 교수가 별세하였다.
- 2013년 7월 22일 권용대 교수가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 2013년 4월 25~27일 제54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연계를 발표했다.
- 2013년 7월 19일~22일 일본턱관절학회에 최병준 교수가 참석하였다.
- 2013년 7월 30일 난치성턱뼈질환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미술부 - 흠



제30회 정기전시회를 개최해 2012년 동안 완성한 총 41점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작품의 양식은 유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크릴화, 펜화, 데생, 수채화 등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작품의 주제 또한 정물화, 인물화, 풍경화, 추상화 등 한 장르에 편중함이 없었습니다. 내외빈께서 작품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을 해주셔서 동아리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축구부 KHDS



경희 치대 축구동아리 KHDS입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졸업식 사진입니다. 축구부가족들이 모여서 졸업하시는 축구부 선배님들을 축하해드리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언제 봐도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의 축구부, 올 한해도 작년처럼 축구와 즐거움 모두 갖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구부 화이팅!!

진료봉사동아리 의료연구회



안녕하세요? 진료봉사동아리 의연입니다. 저희 의연의 활동으로는 정기진료, 정기총

회, 정기교육, 캄보디아 해외진료봉사, 국내 장기진료봉사, MT, 졸업생환송회, 선배님 치과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OB, YB가 정을 나누고 선배님들께 좋은 말씀도 듣는 교육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끈끈하고 정이 넘치는 동아리이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 ^^

산악부



산악부에서는 지난 1월 이현우 교수님과 OB선배님들과 함께 지리산 중주를 다녀왔습니다. 기대되는 산행이었던 만큼 초반부터 난이도가 꽤 있는 코스의 연속이었습니다. 힘겹게 장터목 산장을 거쳐 천왕봉에 올랐을 때의 감격과 그 때 펼쳐진 자연경관이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정상에서 소주를 한~두잔 걸쳐 언 몸을 녹이고 난 후, 다음날 노고단까지의 중주 코스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리산의 절경과 그때 먹은 라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WBM(Will Be a Man)



방학동안 24기 이정우 선배님, 31기 최윤모 선배님, 39기 조규민 선배님 병원을 방문하였고, 1월 31일~2월 3일 경기도 포천 영북에서 장기진료를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최경규 교수님과 박재홍 교수님을 비롯하여, 31기 최윤모 선배님, 41기 선배님들께서 지도치과의사로 참여

하여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졸업한 41기 선배님들께서 전부 방문하여 동아리에 대한 41기의 애정을 몸소 후배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W.B.M. 초대회장이자사 前 지도교수님이신 1기 김여갑 교수님의 퇴임식이 2월에 있었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MS



저희 MS는 격주 일요일 오후 2시~5시 가산디지털단지 근처의 한중사랑교회에서 진료봉사를 하였습니다. 또 1월 19~20일 이틀 간 서산청년회의소와 협약하여 충남 서산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겨울장기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의학/치의학/약학/간호/치위생/lab(검사) 여섯 파트 연합동아리로서 약 35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뿐 아니라 동아리원 서로간 친목을 위해 학기 중, 방학 중에 많은 번개 모임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구부(UNIT)



농구부(UNIT)는 이번 2학기 때 포천으로 1박 2일 가을 MT를 다녀왔습니다. 학기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확 풀고 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후배간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더욱 친목을 돈독히 했고 각종 게임을 통해 쉽없이 웃고 돌아왔습니다. 농구부에서는 농구가 가장 중요 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세

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함께 할 가족 같은 선후배와 함께 웃고 즐기는 것입니다!!

야구부 덴탈 에이스



9월 어느 날 OB선배님들과 시합(OBYB전)을 가지며 2학기 season open을 했고 전남 화순에서 조선치대와 정기교류전(경조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희대 교내 대회인 고향체전에 참가하여 덴탈 에이스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방학 중에는 별도 행사가 없었지만, 팀워크와 실력을 쌓기 위해 팀 훈련을 5회 정도 실시하였고, 4학년 선배님들을 위해 국시 응원과 졸업생환송회를 하였습니다.

기독교봉사 동아리 모듬이들



모듬이들에서는 얼마 전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졸업식 환송회를 삼성동 아웃백 코엑스점에서 개최했습니다. 졸업하시는 6분 중에 3분을 모시고, 재학생 10명과 OB 선배님 6분을 모시고 2월 23일 개최한 이번 환송회에서는 영문으로 된 멋진 감사패도 전달하였습니다. 환송회 시간의 막바지에 재학생-졸업생-OB선배님의 순으로 짧은 소감을 발표 하였습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의 후배들을 위한 사랑과 OB선배님들의 치과의사로서의 멘토링은, 듣고 있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진료학술봉사동아리 CDSA



CDSA는 방학동안 선배님 병원을 방문하고, 1월 30일~2월 3일 겨울 장기 진료 및 MT를 다녀왔습니다. 지도치과의사로 구강외과 이채운, 교정과 이승훈 선생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장기진료지로 방문한 과주 '늘푸른 자활의 집'에는 치과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 다른 때보다 더 의미있는 진료였습니다. 진료 마지막 날에는 구강외과 이백수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이번에 졸업하신 4학년 선배님들께 기념패를 전달하는 졸업생 환송회도 있었습니다.

진료봉사동아리 KODA



우리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많은 선배님들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인으로 살아 감에 있어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그에 따르는 의무와 고민을 들으며 우리 앞에 다가올 멀지 않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치과의사로서의 삶이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둘러싸인 오늘날, 선배님들께선 우려 섞인 좌절감보단 밝은 미래를 확인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모두 힘냅시다! 코다 파이팅!!!

테니스 동아리 Y.D.T.C.



Y.D.T.C.는 10월에 서울대, 연세대와 교류전을 했습니다. 테니스 경기 승패보다는 서로 함께 운동을 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2월 12~15일에는 겨울방학 동안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겨울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 중 선배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재밌는 뒤풀이 시간도 가지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구부 NET



배구부 NET은 2012년도 하반기 때 정기 훈련을 통한 실력향상에 매진하였고, 타 대학과의 교류를 늘려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시즌오픈과 시즌오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국시응원을 통해 선배님들에게 힘을 보였습니다. 방학 중엔 졸업생환송회와 지도교수님이신 최성철 교수님의 안식년 환송회를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편집부

2013년 2월, 편집부는 동아리로 전환된 이래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하신 편집부 기자단은 41기 김미경, 김철희, 유민경, 정지은, 한지희 이상 5명, 구강내과 전양현 교수님께서 '명예기자' 감사장과 함께 졸업을 축하해주셨습니다. 학교 소식에 발빠르게 움직여 경희치전원에 알찬 소식 전하느라 애쓰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치우현우와 편집부 모두 승승장구 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41기 선배님들의 자리에 이제 파릇파릇 45기 기자단들이 오실 차례! 편집부 많이 사랑해주세요. 편집부파이팅^\_^

# UCLA 연수를 마치고



미국 연수에서 돌아온 지 한달이 되었다. 어느새 이곳의 현실에 안주해 버렸는지 그 때의 행복했던 추억이 아련하게만 떠오른다.

남편과 함께 가지 못해 한국에서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 다 처리해야 했던 버거움조차 행복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곳, 수시로 그리워 지던 사람들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곳.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절실히 각성하게 하면서도 대한민국 경희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소중히 새길 수 있게 해주었던 곳, UCLA는 나에게 그런 곳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UCLA 교정과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인연을 맺게 되어 research scholar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 UCLA 교정과에는 4분의 full time faculty가 계신데 그

중 두 분은 research faculty, 두 분은 clinical faculty로서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나는 교정과 chair이면서 research faculty로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Dr. Ting의 랩으로 들어가 Dr. Ting의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매주 수요일은 아침 8시 수련의 대상 정규 강의를 시작으로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instructor 역할을 하며 수련의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갔다.

연구와 임상, 두 길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탈 수 있었던 것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후회 없는 감사한 기회였다.

잘 갖추어진 시스템 하에 대규모의 연구비 지원을 받으며 전문 연구 인력들에 의하여 24시간 유기적으로 돌

아가고 있는 실험실에 들어서는 첫 순간, 그 때 느꼈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하다.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제대로 된 research products를 내 것으로 만들어 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충고 따윈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루 하루가 신선한 자극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으니까. 건조할 줄로만 생각했던 Research 세계가 흥미진진한 story telling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스로 견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특수 시설 출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UCLA lab의 safety training과 specific animal training course를 이수하고 certificate을 받았다.

총 16시간의 실습과 시험으로 구성

되어 있는 과정으로,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과는 그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다.

움직이는 쥐의 꼬리만 봐도 참을 수 없었던 내가 살아있는 rat을 가슴에 안고 social carry를 하며 한 손으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살아있는 교육이란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집약된 정보를 몸으로 익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즉시 실전에 투입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학생들을 지도해 온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실험실 생활이라는 것은 매일 매 시간 매여 있을 만큼 빡빡하지는 않다. 바쁜 시간을 제외하고는 스케줄에 따라 여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나는 그 시간을 모두 클리닉 타임으로 활용했다.

교정 환자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는 환경이었지만, full time faculty에 의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여 1~2주에 한 나질씩 오셔서 봐주시는 part time faculty의 단편적 교육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교정과 특성상, 수련의들은 한국에서 오는 visiting scholar 분들께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환자 증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강의를 통하여 모든 수련의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싶다.

UCLA 교정과 수련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1년 차 때 molecular biology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시행하여 세계적 명문대 출신 엘리트 그룹의 두뇌에 research activity를 부여해 줌으로써

학교 차원의 연구 역량을 급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치과 대학생들 또한 1, 2학년 때부터 발탁하여 그들의 특기 적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을 한 연구 업무의 숙련자로 훈련시키는 중장기적 인재 양성을 실시하고 있었다.

'UCLA Research day'로 매년 하루씩 지정된 날을 잡아 교수님들은 특강을 하였고, 대학생, 대학원생, 수련의 모두가 연구 발표 대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풍부한 시상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는 진정으로 모든 이들의 연구 의욕을 고무시키고 있었다.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임상 진료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신이 진료해 온 케이스들을 국제적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모든 faculty가 주기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게을리 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구성원들은 조직의 비전과 미션에 공감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목표를 세워 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직은 그런 구성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제공해주고 독려하며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포상을 내리는 시스템, 그것이 그 곳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일을 통해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시야를 넓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청명한 캘리포니아의 하늘만 올려다 봐도 웃음이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스트레스 없이 마냥 행복했던 그 시간이 그립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한편으로 내 것이기에 느끼는 애착이나 주인의식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그만큼 덜 해서가 아니었을까...

이제 한국의 내 연구실, 내 진료실에서 나와 우리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과 행복한 일을 찾아가야겠다.

글·사진 치과교정학교실 김수정



## 제8대 최유진 학장님 인터뷰



초가을 감기로 몸이 불편한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반가이 맞아주시고, 또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최유진 학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요?

나요? 잘 지내지요. 얼마전에 사이판에 가서 경비행기도 타고, 관광도 하고 왔지요. 혼자서 말이에요. 허허(웃음) 혼자서도 잘 다녀요.

또 오스트리아도 경치가 아주 좋다고 해서 다녀왔지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곳이라고 하더군요. (웃음)

국내에서는 낚시도 자주 하고 있어요. 켄카켄카 시간은 하염 없이 흘러가는데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 학교에 계실 때나 학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경희대학교에서 예전에 우리가 시위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학장이 되기 전에 교수로 있을 때 현재의 치과병원이 지어졌어요. 내가 학장이 되고나니 그 뒤에 공터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또 욕심(?)을 낸 거예요. 그게 현재의 치과대학이 지어진 부

지이지요.

그러니 학교 본부에서는 대학이 몇 개인데 치과대학에만 이 점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치과대학을 완공했는데 또 건물을 요구하냐며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치과대학 학생들이 다시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바로 내가 학장이었지요. 그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시위를 강력히 막기를 원했겠지요. 그럼 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시위를 막긴 막는데 어디까지 내가 진심으로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학장의 위치라는 게 학교와 학생의 중간 입장이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요. 음, 결과적으로 시위는 성공했고, 나는 학장을 결국 관두게 되었지요. (웃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과거에는 교수들이 과목을 2개씩 맡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병원에서 내과 진료도 같이 하면서 14년 간을 학과장을 맡아 했지요. 아마 내가 최장수 학과장이었을 거예요. 집에까지 일을 싸들고 가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여직원 한 명과 같이 일을 했었는데 많이 힘들어 했지요. (웃음)

어려운 일이 그것 뿐이었겠어요? (웃음) 그 당시 교수 중에서 내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런데 교수 전원이 사표를 낸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첫번째가 의과대학에 비해 치과대학

교수의 봉급 차별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다음으로는 의과대학이 치의학과에서 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사건이었지요. 그 당시 전부 사표를 쓰게 됐는데 그걸 누가 대학본부에 갖다 주겠어요. 막내인 내가 해야지요. 그렇다고 내가 사표를 갖다 주면 또 본부에서는 누가 그걸 받으려 하겠어요. 아무도 접수를 안 하려 했겠지요. 뭐 그런저런 일이 있었지요. 얘기를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요 뭐. (웃음)

### 학장님께서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물론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기는 해요. 경쟁사회이다 보니 결국은 치과의사로서도 쉽지 않죠. 이 건 경희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치의학계 선·후배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결국은 후배 입장에서는 인지도도 약하고, 경력도 없으니 자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 때문에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로 돌아가더라고요. 누가 먼저 덤핑을 하기 시작해보요. 결국은 덤핑이 덤핑을 부르고, 그 피해는 결국 자기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지요.

이건 경희대학교 문제가 아니라 치학계 전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실마리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치과의사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로서는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에요.

###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천하시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나는 여행은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건 내 스타일이기도 하지요. (웃음) 하지만 추천하고자 하는 곳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여기가 참 좋더라' 하고 느꼈으면 그곳을 또 가보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또 세상에는 안 가본 곳이 많잖아요. 기왕이면 안 가본 곳을 많이 가보려고 노력해야지요.

나는 짧지만 유학생활을 스위스에서 했어요. 스위스에서 나를 도와줬던 분이 누가 있는가 하면 경희대학교 외래교수였고, 김인철 교수님 학장시절에 해부조직학교실 정식교수로 계셨던 방성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학생활 동안 나를 많이 도와줬지요. 지금은 스위스에 갔지만 한국에도 자주 오세요. 스위스가 가볼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웃음)

### 학장님께서 항상 유쾌하시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건강유지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곤 하지요. 사람들이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건강유지비결은? 있지요. 팔운동.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웃음)

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저승사자가 오게 되면 "내가 갈 때가 되었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럼 가자' 하며 어깨동무하고 술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나는 이미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듯이 일단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져요. 뭐 미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켄카켄카 잘도 지나가지요.

그 시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귀엽고, 모두 다 이쁘게 보여요. 모두 다 도와주고 싶어지지요. 그러면 조금씩 일을 해서 하다못해 추석에 경비 서는 사람한테도 조금씩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그럼 사는 게 편해요.

왜 세상을 옥해야 하죠? 칭찬도 다 못 하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해요.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 하면서 어렵게 사는지 나는 참 알 수가 없네요. 마음을 편히 가져야죠. 오늘의 젊은 후배들을 보니 난 지금 너무 즐거워요. (웃음)

그리고 음식은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안 가리는 편이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거지요.

얼마 전에 뱃살을 좀 줄여 볼 생각으로 운동도 하곤 했지요. 수영하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야채를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야채만 먹고 하루 4km씩 달렸어요. 그러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탈이 나더라고요. 감기에 걸린 거예요. (웃음) 그래서 느꼈어요. 그 까짓거 배 좀 나오더라도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마 건강의 비결이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스트레스 체로예요. (웃음) 대학에 있으면 싫던 좋은 여러가지 일에 얽히게 되어 있어요. 후배들 또한 논문 작성 등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논문 제출 날 짜 다가오면 피 말린다고 하잖아요.

끝까지 완성하지만 만족이란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제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그 노력으로 나중에 다 보답이 되고 하니 그 시기를 즐겁게 지내야지요.

글·사진 악안면조직재생학교실 노대현

# 치과보존학 교실



전공주임교수 최경규 교수

전체 구성  
수련의 (13명),  
치과위생사 (5명),  
치과조무사 (2명)

## 1. 교실연혁

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존과는 1971년 10월 5일 부속치과병원의 개원과 함께 개설되었으며 2006년 동서신의학병원이 개원하였고, 현재까지 90여명의 전공의를 배출하였습니다.

본 교실에서는 치아 및 치근단 주위 조직에 발생하는 경조직 질환의 예방과 손상된 치아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편감 해소와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결함들에 대한 진단, 치료, 예후를 다루는 치의학의 분야로 치아의 적절한 형태 및 구조를 회복시키고 모든 이가 원하는 아름다운 치아 즉, 심미성을 회복시켜 치아들의 생리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학문입니다.

한때는 치과보존학이 치의학 임상술식 전제로 간주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과거 치과보존학이 속해있던 부분이 전문 분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치과보존학은 치의학의 토대이며 이 토대로부터 치의학의 모든 분야들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 2. 임상진료

치과보존과에서는 치아우식증 즉, 충치에 대한 수복처치가 이루어지는데 복합레진을 이용한 직접 수복 및 금, 레진, 도제인레이를 이용한 간접수복 등이 해당됩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간이개 등에 대해서는 보존적 심미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규·김선영·김덕수 교수님께서 이러한 수복 분야에서 활발한 임상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편, 근관치료 분야의 전문가로는 최기운·박상혁·장석우 교수님이 계신데, 근관치료는 심한 충치나 외상 등이 원인이 되어 염증이 생긴 치수를 제거하고 그 공간을 깨끗이 소독한 후 치과용 재료로 충전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본 과에서는 이 과정 중 미세현미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치아보존을 위한 수술도 행해지고 있는데, 치아의 염증이 근관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미세 현미경을 활용하여 뿌리의 염증조직과 치아 뿌리 중 일부를 제거한 후 치과용 재료로 충전하는 술식인 미세치근단절제술을 비롯하여, 의도적 치아재식술, 자가치아이식술 등의 다양한 수술적 접

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아를 삭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치아의 색을 원래의 색으로 회복시키거나 더 밝게 하여 치아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술식인 치아미백 또한 본 과의 진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3. Research

보존과에서의 연구 영역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주로 치아 경조직에 대한 연구와 치수조직에 대한 연구입니다.

치아 경조직에 대한 연구는 수복 치과학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한 연구와 근관치료에서 사용하는 Ni-Ti file 및 생체적합성 재료(ex: MTA 등)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집니다.

수복 치과학에 관한 연구는 수복 재료들에 대한 생체 적합성 및 구강내에서의 다양한 성능(결합강도, 내구성 등등)에 관한 것이며, 근관치료학에서 사용하는 Ni-Ti file에 대한 연구는 주로 Ni-Ti file의 기계적 물성, 삭제 능력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룹니다.

이밖에도 치아의 치수복합체(Pulp-Dentin complex)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수복재료가 치수복합체에 미치는 세포독성, 유전자적인 변형에 대한 연구와 치수조직에 존재하는 stem-cell 들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초 치의학과 연관되어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보존과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4. 2013년 1학기의 치과보존학교실 학술활동

- 2013.3.20-23. 제91차 국제치과연구학회 세계학술대회(IADR) 포스터 발표 (최경규·김선영 교수)
- 2013.3.23-24. 아시아태평양근관치료학회 학술대회(APEC, 코엑스 그랜드볼룸) 참석, 포스터 발표(김재근·장우정·최재필 선생)
- 2013.3.23-26. 세계근관치료학회 학술대회(IFEA, 일본 도쿄) 참석(박상혁 교수, 이정민 선생)
- 2013.5.11-12.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SETEC) 참석, 구연 발표(김재근·이지혜·장우정·최재필 선생) 및 우수상 수상(김재근 선생)
- 2013.5.27-31. 2013 아시아 엔도 포럼(말레이시아) 참석(최기운 교수)
- 2013.6.14-15. 국제접착치의학 학술대회(IAD, 미국 필라델피아)에 참석, 포스터 발표(김덕수 교수, 장지현 전임의, 변찬

희·주성훈 선생)

## 5. 교수진(주진료과목)

- 최기운 교수: 근관치료, 미세현미경 치근단수술
- 최경규 교수: 심미접착수복, 치아미백, 자가치아이식술
- 박상혁 교수: 근관치료, 심미수복, 미세현미경수술
- 김선영 교수: 심미수복, 근관치료, 미세현미경수술
- 김덕수 교수: 심미수복, 근관치료, 미세현미경수술
- 장석우 교수: 근관치료, 심미수복, 미세현미경수술
- 장지현 전임의: 심미수복, 근관치료, 미세현미경수술

글·사진 구강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김정목



# 골프 초보자를 위한 생초보의 원포인트 레슨

당신에게 추천하는 색다른 힐링 BOOKS



구력 11개월의 나에게 골프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그 동안 주위의 골프 선배 교수님들이 나에게 한 이야기가 '진짜 실현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프에 입문한 후 용어 정의부터 많은 이론적 배경을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섭렵해 왔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골프에 대한 지식을 주위 교수님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한 적이 있고 그럴 때 누군가 골프에 대한 책을 한번 써 보라고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아마 이것이 계기가 돼 골프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는 게임을 즐기면서 라운딩 동반자와 친분도 쌓고, 걷기 운동도 하고, 운동 후 함께 목욕도 하고 식사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골프는 운동부터 교제까지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종합 레포츠다. 무엇보다 골프가 재미 있는 이유는 그날 아무리 잘 쳐도 그 다음에 또 다시 잘 친다는 보장이 없고, 아

무리 연습을 해도 "이 운동 정말 어렵네"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50이 넘어 골프를 배우며 겪은 시행착오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골프에 입문하는 새내기들에게 다음의 제안을 한번쯤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 1. Hitter가 되기보다는 Swinger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부분 골프에 입문할 때 레슨 프로를 찾아가면 그립(Grip)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똑딱이(small swing)를 배운다. Hitting을 배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골프 초보자는 골프공을 보면 이성(?)을 잃기 마련이다. 또한 남자의 경우라면 세계 치러는 동물적 본성을 보인다. 남자는 힘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계 치려고 한다.

하지만 골프 클럽에 공이 쉽게 맞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클럽의 sweet spot에 공이 정확히 맞을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다 보면 계속 잘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잘못된 hitting 연습을 반복하게 된다. 즉 잘못된 연습이 근육에 기억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이다.

골프 공을 실제 치지 않으면서 shadow swing 소위 말하는 가라스wing을 적극 권하고 싶다. 스윙을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원운동이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매일 shadow swing을 반복하면 스윙이 매우 일정해진다. 일정한 스윙을 통해 muscle memory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shadow swing을 매일 50번씩 할 수 있다면 완벽한 스윙을 이룰 수 있다. 스윙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골프 공을 놓고 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공을 보는 순간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의 스윙을 전부 잊어 버리고 다시 hitting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골프가 mental game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인 것이다. 마음 속으로 자신에게 늘 다짐해야 한다. 스윙하다가 골프 클럽이 공을 지나치다 보면 공이 날라 간다는 것을...

## 2. Arm swing을 권하고 싶다.

Tiger Woods가 하는 스윙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은 사진을 보면 단계별로 정말 멋진 폼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에겐 그립의 딱딱한 딱딱하게 되지 않는다. 프로 골퍼만큼 back swing도, down swing도 되지 않고 follow swing도 되지 않는다. 타이거 우즈의 impact 후 follow swing을 보면 왼팔을 쭉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아마추어에게는 이상일 뿐이지 그렇게 시도 하면 body swing(sagittal plane을 중심으로 coiling이 된 후에 uncoiling이 되는 swing)이 따라 주질 않아 왼팔에

chicken wing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back swing 후 down swing 시 lag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오른팔을 오른쪽 옆구리에 붙여서 내려오는 것이다. impact 순간에도 오른팔은 오른쪽 옆구리에 왼팔은 왼쪽 옆구리에 붙이고 follow swing 하면서 왼손의 손등이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손목을 rotation해 준다면 chicken wing은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반복하여 연습하려면 양쪽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고 스윙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유튜브에 접속해 산드라갈 선수의 수건을 이용한 스윙 연습법을 시청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혹자 중 arm swing을 하면 드라이버의 경우 비거리가 감소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드라이버의 거리 욕심을 줄인다면 쉽게 single golfer가 될 수 있다. 골프는 거리 보다는 정확한 방향과 putting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넓히려면 매일 30분에서 60분간 연습해야 10-50m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비거리의 증가를 이룰 수 있지만 연습량에 비하여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아마추어의 경우 arm swing만 해도 충분한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arm swing에 체중 이동만 잘 한다면 클럽의 head speed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골퍼도 있다. 유튜브에 접속해 Paul Wilson의 Effortless golf swing을 시청하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천천히 swing해도 엄청난 head speed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Paul Wilson이 주장하는 스윙이 되려면 엄청나게 빠른 uncoiling이 따라준다. uncoiling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아마추어에게는 slice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3. 헤드업을 방지하자.

impact 순간에 골퍼는 공이 어디로 열

마나 가는 지 보고 싶어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게 되어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스윙을 한다. 헤드업의 발생은 골프 구력에 반비례하는 것 같다. 구력이 길수록 헤드업의 발생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구력이 짧은 초보 골퍼에게 헤드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shadow swing할 때는 헤드업을 하지 않다가도 공이 놓이고 공을 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헤드업을 하기 때문이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헤드업의 방지법은 글로브에 고들개라고 써 놓는 것이다. address 자세에서 글로브에 쓰여 있는 고들개를 보면 impact시에 헤드업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들개란 고개 들면 개 xx란 뜻이다. 하지만 address 자세에서 마음속으로 아무리 고들개를 외쳐도 나도 모르게 헤드업을 하고 있다. impact 후 follow swing 시 왼쪽 귀로 공의 맞는 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린다면 헤드업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매우 유용한 연습 방법인 것 같아 강추한다.

## 4. Modern swing이 아닌

과거의 swing도 권하고 싶다.

골프를 하다보면 한번쯤 Ben Hogan이란 이름을 들어 보기 마련이다. 그는 Ben Hogan's Five Lessons, The Modern Fundamentals of Golf란 책을 저술했으며 그의 책에서 현대 골프 스윙에 대하여 중요한 5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레슨 코치들이 골퍼를 가르친다.

많은 레슨 코치들은 back swing시 고개나 히프가 따라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고, follow swing시에도 고개가 sagittal plane에서 많이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마추어에게는 너무 힘든 레슨 내용인 것 같다. 레슨 프로가 쓰는 표현을 빌리면 고개나 히프를 막으셔야 한

다고 한다. 처음부터 너무 막으려고 하다 보면 스윙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일 수 있다.

고개나 히프가 조금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마추어에게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오히려 이를 너무 지키려면 백스윙도 안 되고 follow swing도 안 되기 마련이다. 과거의 스윙 방법을 동원하면 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백스윙 시 왼발을 약간 Heel-up하는 것이다. 즉 백스윙 시 왼발 뒷꿈치를 약간 들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coiling을 할 수 있게 된다.

## 5. Swing tempo

가장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스윙을 하면서 골프공을 한번 치더라도 Pre-swing routine을 따르는 것이 좋다. 공 뒤에서 골프 클럽을 들고 방향도 확인하고 어드레스 시에도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shadow swing을 한번 하고 다시 정확한 어드레스 후에 wobble을 하고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swing tempo를 생각한다. 예로 어드레스에서 피니쉬까지 속도로 메타바이트를 외치며 스윙을 해도 좋고 하나-둘-셋 하면서 스윙을 해도 좋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구력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field에 나가 swing tempo를 완전히 망각하고 너무 서둘러 스윙하기 마련이다. 박인비의 스윙을 보면 너무 느린 것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녀만의 항상 같은 tempo 때문에 3관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천천히 스윙해도 비거리는 충분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아직 안 된다.

내 나름대로의 원포인트 레슨 방법을 글로 남기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다. 골프의 대가가 이 글을 읽다 보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초보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글 치주과학교실 허익

## 2013학년도 발전기금 입금 (2013. 08. 31 기준)

<b>1억 원 이상</b>	안영자 이창진
<b>7천만 원 이상</b>	곽약훈 (주)신흥
<b>5천만 원 이상</b>	이재광 치과대학동문회(지순준 외), (주)비스코덴탈아시아
<b>3천만 원 이상</b>	김학찬 장지우 전요한 치과대학대전지역동문회, (주)지-씨코리아
<b>2천만 원 이상</b>	고광수 고철수 권영혁 김성기 김용래 김은철 문정기 박준봉 오구환 굿월치과병원
<b>1천만 원 이상</b>	공희정 김광휘 김규남 김성욱 김승운 김여갑 김영훈 김용준 나성식 류동목 박양제 박영국 박주연 박태용 백두흠 변옥 서광원 송요선 신용범 신한식 이광섭 이규원 이기수 이두희 이상혁 이상복 이윤 이정우 이한우 장상건 장지현 정극모 정성민 조영욱 최대균 최영철 한만형 한정희 (주)덴티움, 경희치과병원, 오스템임플란트(주), 오우대학, 참조은치과병원, 치과대학2회, 치과대학3회, 치과대학5회, 치과대학6회, 치과대학9회, 치과대학12회, 치과대학13회, 치과대학15회, 치과대학19회, 치과대학22회, 치과대학수원지역
<b>8백만 원 이상</b>	김광철 김세영 김인화 박창건 유성희 이진웅 정규림 최기운
<b>5백만 원 이상</b>	고광준 권공록 권일근 김기태 김려수 김상일 김수철 김영진 김중환 김관식 김필수 김향경 김형찬 박기범 박능석 박도양 박상혁 박승훈 박영철 박용덕 박재홍 박태용 박희경 백동준 신명 신제원 양승춘 우이형 윤옥병 이건영 이건주 이근혁 이명성 이상래 이상철 이상호 이현우 임호남 장건택 정용식 정재규 조재민 조재오 조준영 조해성 지찬동 최경규 최근락 최기운 최성백 최용석 최유진 최인 최호근 허성운 허익 홍정표 황의환 황재상 (주)악어미디어, 치과대학16회
<b>3백만 원 이상</b>	강기현 강승훈 고봉진 구한미 권근원 권순용 권용대 권태훈 권호진 김덕 김동호 김명환 김보혜 김석훈 김선규 김성용 김성환 김소현 김옥진 김우찬 김윤홍 김진오 김진철 김형남 김형섭 김형진 김효종 김훈회 남종현 마경화 박갑용 박남수 박동진 박미애 박상규 박상규 박상진 박성동 박수배 박희찬 백영완 부용철 성낙도 손세일 손원영 송창준 신민철 신민호 신원용 신의종 안민호 안희진 양영환 어규식 염상국 오범수 오병식 오성산 오승훈 오화탁 우정석 우택호 우형식 유석규 유신종 유영선 유용균 유충현 유형열 윤덕상 윤인중 이규원 이건욱 이광희 이근호 이동식 이만섭 이백수 이상태 이영준 이용호 이재천 이종태 이진표 이철재 임성빈 임성수 임순빈 임인학 장봉렬 장성진 장우익 장희웅 전양현 정동진 정병선 정순준 정연식 정운봉 정종혁 정창권 정철민 정중모 정형주 제한봉 조승중 조민규 조세종 조인교 조정근 조태희 조한규 조호규 주성수 지유진 천강정 최병환 최부병 최재영 최정규 최현수 최호영 한승완 한용환 한훈 홍성태 홍영안 김정수치과의원, 이치과의원, 최신치과
<b>2백만 원 이상</b>	권기열 김기문 김도완 김동기 김명진 감방수 김성진 김옥현 김은 김원겸 김인수 김재승 김정희 김종규 김지태 김춘진 김홍모 나금균 류중균 모규업 문재룡 문항진 박노희 박선영 박성근 박성원 박수진 박재현 백종은 손일수 신동진 신현택 오인종 유경민 유재홍 윤석우 이규찬 이미경 이상복 이상훈 이수인 이은준 이정민 이종규 이준열 이창진 이필제 이해승 인영미 임태수 장수일 정주성 조민우 조승제 허정상 허정선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치과대학1기동문,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 전공의 일동
<b>1백만 원 이상</b>	강정백 강한중 고진환 고천석 곽춘길 구국본 구분룡 구자경 구자룡 구재우 권수갑 기태석 길종선 김경용 김규원 김동규 김문기 김미경 김봉현 김상석 김선욱 김선호 김성길 김성철 김세일 김수강 김영일 김용구 김원겸 김재구 김재우 김재일 김재철 김정목 김정학 김종호 김중종 김진호 김철중 김충길 김태형 김택청 김해근 김현호 김혜경 김흥기 나종일 나태돈 남병우 남재형 노영익 류경희 류훈 문민연 문수인 문용환 문은영 민효기 박내길 박동원 박두중 박병걸 박병욱 박봉규 박상규 박상기 박상현 박상훈 박석범 박순건 박순정 박영수 박영주 박은기 박일해 박재석 박정용 박철제 박철성 박현 박현석 배영수 백상규 백영길 변태진 사영철 서경숙 서남영 서윤원 성락진 송국현 송민재 송은면 송재만 송근배 신동건 신동구 신혜련 안광식 안근구 안병구 안병두 안장원 안재희 안형준 어수철 엄인석 오세웅 오세운 오정진 오창근 오충영 오현미 원미영 유선렬 유인영 유주현 윤경호 윤동호 윤두근 윤민외 윤창구 이경중 이광훈 이광재 이도규 이병호 이병태 이상은 이상희 이상철 이선희 이상철 이세준 이세춘 이소택 이영규 이영근 이영석 이완규 이원섭 이원화 이인석 이재학 이재홍 이정열 이정현 이종민 이천복 이충복 이태수 이태호 이화연 이흥기 이희정 임기호 임길웅 임상욱 임종성 임천택 장영빈 장원중 장정태 장철민 장현주 장훈 전석열 전장환 전종혁 정관희 정대현 정성모 정용복 정인교 정철 정희일 조동석 조병도 조성국 조성열 조영진 조의현 조익주 조정현 조진호 지용기 지정호 지준순 차덕선 차애경 채영원 천무철 최명애 최상돈 최승규 최승현 최연석 최영범 최원침 최원재 최인식 최중우 최중실 최천영 하대주 한기림 한문식 한봉식 한정희 한중수 한창규 한휘철 함동선 허귀남 현원섭 홍선희 홍진표 홍해룡 황용규 경희치과의원, 구미공단예치과병원, 뉴욕BNS치과의원, 드림빌딩(서남영), 서산예치과, 세영치과의원, 송도드림치과의원, 웰니드치과의원, 이원준치과의원, 함께하는치과
<b>1백만 원 미만</b>	강남현 강대인 강승규 강주성 강철규 강혜령 강해성 고건호 고영훈 고일혁 고창배 고현 공선식 공순현 공준하 곽용훈 권구현 권순민 권정은 금구석 금미연 김경선 김광식 김교철 김남준 김남중 김대기 김명섭 김미경 김민성 김배경 김보균 김보라 김보선 김상균 김상우 김석웅 김성원 김성일 김승일 김시석 김시영 김영기 김영덕 김영란 김영택 김윤희 김일환 김재욱 김재수 김중현 김창용 김철순 김태연 김학렬 김혜정 김호진 김홍광 나영민 노대현 노은희 류창수 류호경 모덕진 문영훈 문희현 민관순 박건호 박경아 박경일 박금출 박기현 박성규 박성규 박수정 박승 박용호 박원규 박재춘 박준수 박지혜 박창훈 박춘배 반태환 배기창 배일환 배한익 백기현 백진 백효찬 변현홍 서경성 서재승 서찬호 소용섭 손미연 송성국 송현우 신강섭 신동렬 신용문 신재창 양경돈 양광모 여병영 오나희 오승교 오승환 오우리 오정란 오현주 우승철 원현두 유용재 유지연 유지훈 유지석 유하균 유희승 윤성수 윤여진 윤용섭 윤인탁 이대승 이동현 이석원 이성만 이수미 이수영 이수욱 이승규 이시원 이연수 이영희 이윤정 이은권 이은만 이을재 이인석 이정교 이정행 이정호 이지민 이지혜 이창규 이채숙 이태희 이한주 이현우 이현경 이현식 이혜영 임형석 임병진 장영명 장영배 장예진 장형준 전성근 전영신 전찬덕 장남희 정민수 정성민 정성진 정연진 정연진 정윤주 정의산 정준호 정지향 조규석 조영주 조윤숙 조익주 최대영 최동훈 최문철 최병준 최성연 최승모 최승현 최창규 최현용 최희철 하지용 하지양 한동인 한무현 한수희 한혜숙 홍동희 홍해룡 황동현 황윤태 황지영 모마치과, 성모치과, 연수준치과의원, 프랜드치과의원

## 동문회 소식 및 경조사

- 2013년 3월 30일 박영상(18회) 동문 부친상
- 2013년 4월 12일 최용석(22회) 교수 모친상
- 2013년 5월 13일 최호영(13회) 동문 모친상
- 2013년 6월 17일 신기식(1회) 동문 본인상
- 2013년 8월 11일 정병선(15회) 동문 부친상
- 2013년 8월 15일 홍정표(8회) 교수 모친상
- 2013년 4월 6일 박영국(9회) 교수 자녀 결혼
- 2013년 4월 13일 전양현(18회) 교수 측두하악장애학회장 취임
- 2013년 4월 14일 장상수(3회) 동문 자녀 결혼
- 2013년 4월 20일 나성식(3회) 동문 자녀 결혼
- 2013년 4월 27일 김여갑(1회) 교수 치협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
- 2013년 6월 9일 동문골프대회 선수권 : 1위 이성만(16회), 2위 이근중(7회), 3위 손세일(18회)  
신페리오 1위 김진호(16회), 2위 조종만(13회), 3위 최호근(14회)  
단체 1위 16기, 2위 7기, 3위 22기
- 2013년 7월 7일 전국치과대학 동문골프대회 단체전 준우승 (최종우, 이성만, 이용현, 김소현)

